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and Young Adults' Career Decision-Making : The Mediational Roles of Differentiation of Self

권소희(So Hee Kwon), 이재림(Jaerim Lee)*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differentiation of self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i.e., care and overprotection)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among young adults. We separately measured the mother's and the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five dimensions of differentiation of self that S. Je (1989) suggested. The data came from 387 young adults who were juniors and seniors at universities in Seoul and its surrounding cities. Using Baron and Kenny's (1986) steps based on regression, we found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both caring and overprotective parenting styles and young adults'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were mediated by four dimensions of differentiation of self (i.e., intellectual functioning vs. emotional functioning, family projection process, emotional cutoff, and family regression) except for integration of self. The results were consistent for both the mother and the father. Bootstrapping tests showed that all of the mediation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howing that young adults'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is not simply determined by inputs such as parenting styles but is also mediated by differentiation of sel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both the mother's and the father's parenting styles could make a difference in young adults'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differentiation of self.

▲주제어(Key Words) : 대학생(young adults), 양육태도(parenting styles),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진로결정수준(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I. 서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다른 발달시기

보다 진로결정이 더욱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동시에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E. Park, 2008). 실제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와 직업 선택이라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2014년 대한가정학회 및 한국가정관리학회 주최 통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확대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Jaerim Lee,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ro-gu, Seoul 110-745, Republic of Korea, Tel: +82-2-760-0519, E-mail: jaerimlee@skku.edu

는 것을 선행연구 및 대중매체를 통해 알 수 있다(H. An, 2012; M. Kim & B. Kim, 2007).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진로미결정상태는 대학생들에게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S. Park & H. Park, 2009), 최근 진로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이 극도에 달하여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J. Kang, 2012).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진로결정 또는 진로미결정 수준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축적되어 메타분석(A. Jung, K. Kim, & D. Kim, 2008)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이나 가족적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분화(S. Ha, 2012), 자기효능감(B. Khu & J. Yoo, 2010), 자아존중감(H. Kim, 2005; N. Kim & K. Lee, 2012; M. Koh & J. Park, 2008) 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H. Lee & H. Jo, 2004), 부모의 긍정적 관여(B. Khu & J. Yoo, 2010), 부모의 지지(J. Shin, 2010), 부모-자녀 유대관계(J. Kim & J. Jung, 2012) 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H. Lee & H. Jo, 2004).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있어서 개인적, 가족적 요인이 미치는 직접효과를 주로 연구해왔다. 그러나 개인적, 가족적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매개효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분화가 가족적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및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Y. Woo & K. Lee, 2007)와 같이, 부모-자녀관계 관련 변수와 진로 관련 변수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추세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이나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의 하나로 자아분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아분화는 Bowen(1982)의 가족체계이론의 핵심개념이다.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고, 타인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뿐 아니라 스트

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목표지향적 삶을 산다고 한다(Bowen, 1982). 그 결과,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은 진로확신이나 진로결정수준(S. Ha, 20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S. Moon, 2013)이 높은 경향이 있다. 자아분화는 개인 내적(intra-personal) 차원과 대인관계(inter-personal)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Bowen, 1982). 따라서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자아분화를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취급하기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분류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한 S. Je(1989)의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W. Hong, 2013; K. Kim & S. Kim, 1996; E. Lee, 2001; H. Yoo, 2004)는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를 매개변수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Parker, Tupling, and Brown(1979)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돌봄과 과보호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차원 모두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 Kim, 2012). 즉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애정적으로 대하는 돌봄적 양육태도를 취하면 자녀의 자아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통제, 간섭, 과잉보호 등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면 자녀의 자아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청소년 또는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학업 관련 종속변수를 주로 다루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S. Lim, Y. Lee, & S. Eo,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S. Moon, 2013)가 그 예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는 인지적 능력이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진로결정수준과 같이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발달과업의 성취수준 지표와는 성격이 다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분화라는 매개변수를 거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봄에 있어, 학업 관련 종속변수에 그치지 않고 진로결정 등 대학생의 발달과업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진로발달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J. Heo, 2010; H. Kim, 2005; H. Lee & H. Jo, 2004; E. Park, 2008). 아동기의 일차적인 보호자가 대개 어머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선행연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

근 자녀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 효과(fathering effect)’가 지적되고(Parke, 1996) 진로발달과 진로탐색에서도 아버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Poulter(2006)는 진로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보다 비울적으로 더 많이 직업생활을 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특성이 자녀의 진로탐색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다. Mobely (1976, as cited in A. Yoo & Y. Kim, 2003) 역시 학업, 직업, 경제생활 등의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였으며,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적, 직업적, 경제적인 포부와 열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녀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하여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자녀의 성격과 가치관 형성이나 지적발달에 관여하는 중요한 변수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의 연결고리로 자아분화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돌봄, 과보호)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 영역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어떤 측면이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개인적·가족적 특성 변수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대·심화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이나 대학생의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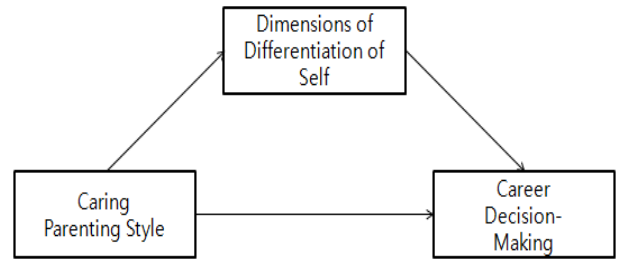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Model for C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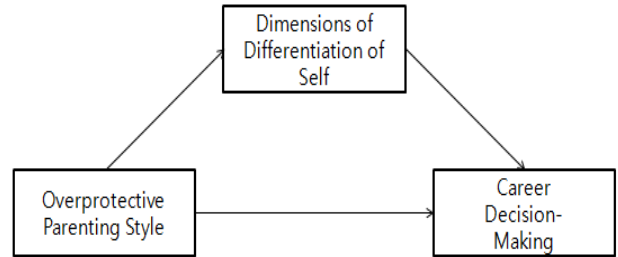


Figure 2. Conceptual Model for Overprotection

Note. Dimension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re (1)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2) integration of self, (3) family projection process, (4) emotional cutoff, and (5) family regression.

이상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ure 1> 및 <Figure 2>와 같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H. Koh, 1992)를 말한다. B. Kim(1997)에 따르면 진로결정수준이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한다. 그는 ‘진로를 결정했다’ 함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 분야의 선택을 뜻한다고 하였다(B. Kim, 1997).

대학생 시기는 학교와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시기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이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에게 있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족’ 등의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과보호적이며,

자녀는 부모에게 정서적, 경제적, 공간적, 기능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rnett(2000)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새로운 발달 단계인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가 출현하였다고 하였다. 발현성인기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대학생 시기는 불안정하지만 정체성을 탐색하고 자기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Arnett, 2000)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적, 가족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H. Kim, 2005; H. Lee & H. Jo, 2004), 애착(U. Kim & S. Cheon, 2001) 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분화(M. Kim, 2002), 자아정체감(U. Kim & S. Cheon, 2001; S. Lee, 2000), 자아존중감(H. Kim, 20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M. Kim & B. Kim, 2007) 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은 진로결정수준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개인적 요인인 자아분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 Oh and J. Lee(1982)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E. Jin, 2001).

Parker et al.(1979)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를 요약, 분석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의 기본적인 요소를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돌봄은 부모의 애정, 정서적 따뜻함, 공감 및 친밀감으로, 돌봄적 양육태도란 따뜻하고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말한다. 과보호는 부모의 통제, 과보호, 침입, 과도한 접촉, 아기 취급, 독립적 행동의 방해 등으로, 과보호적 양육태도란 과도한 과보호와 간섭으로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말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확신이 높아지고,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미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 Lee & H. Jo, 2004). 또 대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이 낮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N. Hong, 2010).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오늘날 대학생들이 부모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부모가 직접 진로결정에 개입하고 있음(Y. Choi, 2007)을 고려한다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관련 변수의 관련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양육태도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측정해왔다. 아동기의 일차적인 보호자가 대개 어머니라는 점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질적으로 다르며,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에게 독자적인 특성을 나타낸다(Lamb, 1975; Parker, 1979)는 점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진로발달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이 직업생활을 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중요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특성이 자녀의 진로탐색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Poulter, 2006).

선행연구에서도 일부이기는 하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진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애정, 자율, 합리, 성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확신수준에 더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K. Kim, 2006), 어머니의 수용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상호작용 할 경우에는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나, 아버지의 경우는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 Kim, 2005)가 그 예이다. 이러한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동향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의 관계

자아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정서적 성숙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한 정도를 의미한다(S. Je, 1989). 자아분화의 발달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E. Jang, 2011). Bowen(1982)에 따르면,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타인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목표지향적 삶을 산다. 그러나, 자아분화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은 감정적이고,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며,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고 자율성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역기능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Bowen, 1982).

S. Je(1989)에 의하면 자아분화는 다섯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위영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 Kim, 1996, 36-37). 첫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개인의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둘째, 자아의 통합은 개인이 관계 체계 또는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는지 말하는 것으로, 진아(眞我)와 가아(假我)가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셋째, 가족투사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투사를 하기 쉬운 부모의 특징(자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근심)과 부모가 표명했던 근심과 현재 상태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넷째, 정서적 단절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나 고립 등의 정신내적 기제의 사용,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의 욕구를 말한다. 다섯째, 가족퇴행은 가족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성원들이 이에 대처하는 방법,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행위,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삼자와의 삼각화 경향, 기타 가족성원 간의 역기능적인 의사거래유형을 말한다.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자아분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S. Nam & Y. You, 2007).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침(K. Kim & S. Kim, 1996; H. Yoo, 2004; E. Lee, 2001; W. Hong, 2013)을 알 수 있다.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의 관련성은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K. Park(2011)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와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기능 대 정

서적 기능,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 정적 상관을 보였고, 애정-적대는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자아의 통합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없었다. D. Han and W. Kim (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자아의 통합은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H. Yoo, 2004)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 수용과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의 통합은 아버지의 온정 수용에서만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허용 방임은 가족퇴행과 부적 상관을, 어머니의 허용 방임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4. 자아분화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적, 가족적 요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자아분화 수준은 평생을 통해 향상이 가능한 변수이므로 진로미결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아분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S. Kang, 2013)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분화와 취업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어서, 자아분화가 잘 되었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다고 하였다(K. Kang, 2009). 이는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가 진로결정에 대한 스트레스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자아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분화의 각 하위영역은 진로결정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S. Je(1989)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자아분화의 하위영역별로 정리해보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S. Kang, 2013; J. Kim, 2000; M. Kim, 2002), 자아의 통합(S. Han, 2007; B. Jun, 2008; H. Jung, 2006; J. Kim, 2000; M. Kim, 2002), 가족투사과정(S. Han, 2007; B. Jun, 2008; S. Kang, 2013; M. Kim, 2002), 정서적 단절(S. Han, 2007; B. Jun, 2008; H. Jung, 2006; S. Kang, 2013), 가족퇴행(B. Jun, 2008; J. Kim, 2000)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한편 자아분화를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으로 분류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한 S. Ha(2012)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정서적 단절을 제외한 자아분화의 모든 하위영역이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적 반응, 타인과 융합, 정서적 융

합이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연구대상과 척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자아분화의 하위 영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자아분화가 잘 되었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5. 양육태도, 자아분화,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의 관계,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자아분화의 하위영역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N. Hong, 2010; M. Kim, 2002; H. Lee & H. Jo, 2004),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며(W. Hong, 2013; K. Kim & S. Kim, 1996; E. Lee, 2001; H. Yoo, 2004), 자아분화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S. Ha, 2012; B. Jun, 2008; H. Jung, 2006; S. Kang, 2013; J. Kim, 2000; M. Kim, 2002)고 한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아분화, 진로결정수준 간의 직접효과에 대한 파편적인 연구결과는 존재하지만, 양육태도가 자아분화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 관련 변수와 자녀의 진로 또는 학업 관련 변수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매개효과를 발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부모 관련 특성과 청소년의 진로 또는 학업 특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M. An & K. Yu, 2013; S. Choi, 2013; J. Kim & J. Jung, 2012)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S. Lim, Y. Lee, & S. Eo, 2012; G. Yook, 2013)를 분석한 연구가 그 예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K. Kim, 2009),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 및 애착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U. Kim & S. Cheon, 2001),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S. Moon, 2013), 부모애착과 진로태도 성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E. Lee & S. Lee,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Y. Woo & K. Lee, 2007), 애착과 독립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E. Jeon & K. Kwon,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N. Hong, 2010)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오늘날 부모의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인 태도로 인하여 자아분화를 잘 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분화의 하위영역별로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었고(D. Han & W. Kim, 2013; H. Yoo, 2004; K. Park, 2011), 자아분화의 하위영역별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S. Han, 2007; H. Jung, 2006; S. Kang, 2013; J. Kim, 2000; M. Kim, 2002)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영역별 매개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의 특성 상 대학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진로결정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1학년과 2학년을 제외하고, 졸업과 취업에 앞서 진로결정이 중요한 문제인 대학교 3학년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유사한 비율로 표집하였고, 학년은 3학년과 4학년 이상을 유사한 비율로 표집하였다. 총 400명의 응답자 중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6세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모두 있는 387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측치를 허용하지 않는 온라인 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결측치는 없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3년 8월-9월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질문지로 2013년 11월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면접자에 의한 오류가 없으며,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만 응답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한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오프라인 조사와 온라인 조사방법 사이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온라인 조사가 응답자들이 질문에 더 정확히 답변한다는 연구결과(S. Bae, 2012)도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387명 중 남학생이 196명(50.6%), 여학생이 191명(49.4%)으로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다. 학년 역시 3학년이 198명(51.2%), 4학년 이상이 189명(48.8%)으로 비슷했다. 연령은 20세부터 29세까지 분포했고 평균 23.27세였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207명(53.5%), 공학계열이 92명(23.8%), 자연과학계열이 49명(12.7%), 예체능계열이 18명(4.7%), 사범계열이 6명(1.6%), 기타가 15명(3.9%)으로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수가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독립변수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25문항으로 구성된 PBI(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arker et al., 1979)를 바탕으로, J. Song(1992)이 개발한 한국판 PBI(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과거 16세 이전까지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식으로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BI는 돌봄과 과보호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부모의 양육태도를 평가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돌봄 차원은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겼다' 등의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돌봄, 따뜻함, 수용적인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과보호' 차원은 '나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였다', '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했다' 등의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생활 침입, 과잉통제, 죄책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안 그랬다' 1점에서 '아주 그랬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한다. 채점방법은 돌봄 차원에서 2개의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더 돌봄적임을 의미한다. 또 과보호 차원에서 7개 문항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더 과보호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돌봄 문항의 Cronbach's α는 아버지 .929, 어머니 .906이었으며, 과보호 문항의 Cronbach's α는 아버지 .849, 어머니 .86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돌봄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 각각 전체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진로결정수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sipow, Carney, Winer, and Koschier(1980)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Scale을 H. Koh(1992)가 우리 문화에 적절한 표현으로 번안한 진로결정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수많은 대학생 진로 관련 연구에서 우수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왔다(S. Kang, 2013; B. Khu & L. Yoo, 2010; H. Lee & H. Cho, 2004). 진로결정검사는 총 18개 문항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과 미결정성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채점한다. 이 중 처음의 2개 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개 문항은 진로미결정수준을 측정한다. 진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387)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96 (50.6)
	Female	191 (49.4)
Age	M = 23.27 (SD = 1.81)	
School year	Junior	198 (51.2)
	Senior	189 (48.8)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7 (53.5)
	Engineering	92 (23.8)
	Natural sciences	49 (12.7)
	Arts and kinesiology	18 (4.7)
	Education	6 (1.6)
	Others	15 (3.9)

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에 관한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진로확신수준은 진로결정수준과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사용한 바 있다.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등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아주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진로미결정수준을 측정하는 16개 문항을 모두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의 Cronbach's α 는 .900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고 전체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아분화

매개변수인 자아분화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S. Je(1989)가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측정도구는 다섯 가지 하위척도인 (1)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7문항), (2) 자아의 통합(6문항), (3) 가족투사과정(6문항), (4) 정서적 단절(6문항), (5) 가족 퇴행(11문항)으로 나뉜다. 각 하위개념에 대한 설명은 2장에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6개의 문항 중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자아의 통합 2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34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부터 '아주 그렇다'는 4점의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 Je (1989)의 채점방식에 따라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며(인지적 기능 대 정서

적 기능), 진아(眞我)와 가아(假我)가 잘 분화되어 있고(자아의 통합), 부모가 갈등이나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정도가 낮으며(가족투사과정), 원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애착이 높고(정서적으로 단절), 가족구성원 간의 개체성이 잘 분화된 것(가족퇴행)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인지적 대 정서적 기능 .787, 자아의 통합이 .602, 가족투사과정이 .870, 정서적 단절이 .808, 가족퇴행이 .89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전체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고,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분화, 진로결정수준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 및 Kenny(2014)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2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3단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4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매개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면 사라진다. 이 4단계가 모두 성립하면 완전매개(full mediation)라고 하며, 1-3단계만 성립하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1단계가 매개효과 성립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Kenny, 2014).

Table 2. Inter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 = 387)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 Father's caring										
2. Mother's caring	.542**									
3. Father's overprotection	-.386**	-.368**								
4. Mother's overprotection	-.296**	-.533**	.553**							
5.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199**	-.189**	.217**	-.247**						
6. Family projection	.361**	-.486**	.260**	-.422**	.414**					
7. Emotional cutoff	.552**	-.490**	.448**	-.320**	.302**	.393**				
8. Family regression	.559**	-.369**	.603**	-.332**	.346**	.315**	.522**			
9. Integration of self	-.025	.025	-.046	.055	-.176*	-.058	-.179**	.025		
10. Career decision-making	.207**	-.243**	.219**	-.212**	.399**	.360**	.264**	.264**	-.016	

* $p < .05$, ** $p < .01$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모델 1에서 1단계인 독립변수인 양육태도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회귀모델 2에서 2단계인 독립변수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자아분화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 회귀모델 3에서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3단계와 4단계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61-.99로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00-1.63으로 모두 10 이하이므로 각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가 나타난 경우,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Hayes, 2013) 기법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한 매개효과 검증은 Sobel 검증 등 기존에 사용되던 매개효과 검증법과는 달리 추리통계의 제약조건인 정상분포 가정을 필요치 않아 다른 검증법에 비해 매개효과 검증에 매우 적합하다(S. Kim, S. Song, & J. Lee, 2012; Preacher & Hayes, 2004). Bootstrapping 검증은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한다. 모든 매개효과 분석에서 성별을 통제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별도로 분석하였고, 자아분화도 하위영역별로 모두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으며, bootstrapping은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시하고 Hayes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SPSS INDIRECT

macro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아분화, 진로결정수준의 전반적 특성

대학생이 인식한 16세 이전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대학생의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수준의 전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태도의 남녀 대학생 평균은 2.84점(표준편차 = .58),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15점(표준편차 = .49), 아버지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1.90점(표준편차 = .44),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2.03점(표준편차 = .47)으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점수범위가 1점에서 4점인 것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중간 이상이며,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중간보다 낮았다. 돌봄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 모두 어머니의 평균 점수가 아버지보다 높아서 조사대상자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16세 이전에 더 높은 수준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을 각각 살펴보면, 인지적 기능 대정서적 기능의 남녀 대학생 평균은 2.91점(표준편차 = .51), 자아의 통합의 평균은 2.71점(표준편차 = .40), 가족투사 과정의 평균은 3.09점(표준편차 = .65), 정서적 단절의 평균은 2.65점(표준편차 = .65), 가족퇴행의 평균은 3.00점(표준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Study Variables (N = 387)

	M	SD
Father's caring (1-4)	2.84	.58
Mother's caring (1-4)	3.15	.49
Father's overprotection (1-4)	1.90	.44
Mother's overprotection (1-4)	2.03	.47
Differentiation of self (1-4)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2.91	.51
Integration of self	2.71	.40
Family projection	3.09	.65
Emotional cutoff	2.65	.65
Family regression	3.00	.55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1-4)	2.98	.58

편차 = .55)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가족사과정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퇴행,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순이었으며, 정서적 단절의 전체 평균이 가장 낮았다. 자아분화를 4단계 수준의 범주로 나타내었을 때 자아분화 수준이 75% 이상 일 때에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Papero, 1990), 자아분화 척도의 응답가능 점수범위가 1점에서 4점인 것을 고려할 때, 3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하위영역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은 2.98점(표준편차 = .58)으로 응답가능 점수범위가 1점에서 4점인 것에 비추어보면 중간보다 높은 편이었다.

2.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1)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각 하위영역별 매개효과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돌봄이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beta = .213, p < .001$)을 미쳤고, Model 2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돌봄이

Table 4. Mediation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Caring* and Young Adults' Career Decision-Making (N = 387)

Model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	SE	β	R ²	F
1	Fa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13	.050	.213***	.055	11.246***
2	Father's caring →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189	.044	.215***	.049	9.842***
3	Fa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135	.047	.135**	.182	28.496***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 Career decision-making	.416	.054	.366***		
1	Fa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13	.050	.213***	.055	11.246***
2	Father's caring → Integration of self	-.042	.042	-.051	.011	2.078
3	Fa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12	.050	.212***	.056	7.507***
	Integration of self → Career decision-making	-.017	.061	-.014		
1	Fa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13	.050	.213***	.055	11.246***
2	Father's caring → Family projection process	.303	.054	.272***	.103	22.073***
3	Fa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116	.049	.116*	.162	25.922***
	Family projection process → Career decision-making	.320	.044	.356***		
1	Fa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13	.050	.213***	.055	11.246***
2	Father's caring → Emotional cutoff	.501	.051	.451***	.203	48.780***
3	Fa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117	.055	.117*	.091	12.850***
	Emotional cutoff → Career decision-making	.191	.049	.213***		
1	Fa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13	.050	.213***	.055	11.246***
2	Father's caring → Family regression	.559	.038	.593***	.390	122.772***
3	Fa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098	.062	.098	.078	10.855***
	Family regression → Career decision-making	.206	.067	.194**		

* $p < .05$, ** $p < .01$, *** $p < .001$. Controlling for gender is not shown.

매개변수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 ($\beta = .215, p < .001$)을 미쳤다. Model 3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돌봄과 매개변수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며($\beta = .366, p < .001$),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을 통제된 상태에서 아버지 돌봄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Model 1에서보다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beta = .135, p < .01$). 즉,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아버지 돌봄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 = .041 ~ .126).

자아의 통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돌봄이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다($\beta = .213, p < .001$). 그러나 Model 2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돌봄이 종속변수인 자아의 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돌봄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의 통합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돌봄이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고($\beta = .213, p < .001$), Model 2에서 아버지 돌봄이 가족투사과정과 정서적 단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가족투사과정 $\beta = .272$, 정서적 단절 $\beta = .451$, all $p < .001$).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가족투사과정과 정서적 단절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가족투사과정 $\beta = .356$, 정서적 단절 $\beta = .213$, all $p < .001$), 아버지 돌봄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Model 1에서보다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가족투사과정 $\beta = .116$, 정서적 단절 $\beta = .117$, all $p < .05$). 즉 가족투사과정과 정서적 단절 모두 아버지 돌봄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가족투사과정 95% CI = .058 ~ .145, 정서적 단절 95% CI = .043 ~ .157).

가족퇴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돌봄이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고($\beta = .213, p < .001$), Model 2에서 아버지 돌봄이 가족퇴행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593, p < .001$).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가족퇴행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으며($\beta = .194, p < .01$), 아버지 돌봄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

하지 않았으므로, 가족퇴행이 아버지 돌봄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95% CI = .035 ~ .196).

2)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각 하위영역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 돌봄이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beta = .203, p < .001$)을 미쳤고, Model 2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 돌봄이 매개변수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beta = .197, p < .001$)을 미쳤다.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며($\beta = .369, p < .001$), 어머니 돌봄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Model 1에서보다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의하였으므로($\beta = .131, p < .01$),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어머니 돌봄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 = .039 ~ .150).

자아의 통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 돌봄이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고($\beta = .203, p < .001$), Model 2에서 어머니 돌봄이 자아의 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의 통합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 돌봄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의 통합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 돌봄이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고($\beta = .203, p < .001$), Model 2에서 어머니 돌봄이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가족투사과정 $\beta = .368$, 정서적 단절 $\beta = .553$, 가족퇴행 $\beta = .553$, all $p < .001$). 모델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며(가족투사과정 $\beta = .361, p < .001$, 정서적 단절 $\beta = .220, p < .001$, 가족퇴행 $\beta = .202, p < .01$), 어머니 돌봄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어머니 돌봄과

Table 5. Mediation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aring* and Young Adults' Career Decision-Making (N = 387)

Model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	SE	β	R ²	F
1	Mo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42	.059	.203***	.051	10.403***
2	Mother's caring →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206	.052	.197***	.042	8.357***
3	Mo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155	.056	.131**	.182	28.335***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 Career decision-making	.420	.054	.369***		
1	Mo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42	.059	.203***	.051	10.403***
2	Mother's caring → Integration of self	-.207	.050	-.028	.009	1.715
3	Mo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41	.059	.203***	.052	6.971***
	Integration of self → Career decision-making	-.024	.061	-.020		
1	Mo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42	.059	.203***	.051	10.403***
2	Mother's caring → Family projection process	.486	.062	.368***	.164	37.774***
3	Mo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084	.060	.070	.161	24.424***
	Family projection process → Career decision-making	.325	.046	.361***		
1	Mo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42	.059	.203***	.051	10.403***
2	Mother's caring → Emotional cutoff	.731	.056	.553***	.306	84.618***
3	Mo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097	.070	.081	.085	11.880***
	Emotional cutoff → Career decision-making	.198	.053	.220***		
1	Mo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242	.059	.203***	.051	10.403***
2	Mother's caring → Family regression	.620	.046	.553***	.345	101.300***
3	Mother's caring → Career decision-making	.109	.071	.092	.078	10.806***
	Family regression → Career decision-making	.214	.064	.202**		

** $p < .01$, *** $p < .001$. Controlling for gender is not shown.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모두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가족투사과정 95% CI = .105 ~ .222, 정서적 단절 95% CI = .066 ~ .234, 가족퇴행 95% CI = .052 ~ .217).

3.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1) 아버지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각 하위영역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과보호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beta = -.220$,

$p < .001$)을 미쳤고, Model 2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과보호가 매개변수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정서적 단절에 유의미한 영향(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beta = -.253$, 정서적 단절 $\beta = -.320$, all $p < .001$)을 미쳤다.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정서적 단절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며(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beta = .362$, 정서적 단절 $\beta = .217$, all $p < .001$), 아버지 과보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Model 1에서보다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beta = -.129$, 정서적 단절 $\beta = -.150$, all $p < .01$). 따라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정서적 단절은 아버지 과보호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95% CI = -.194 ~ -.065, 정서적 단절 95% CI = -.154 ~ -.045).

Table 6. Mediation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Overprotection* and Young Adults' Career Decision-Making (N = 387)

Model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	SE	β	R ²	F
1	Fa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292	.066	-.220***	.058	11.887***
2	Father's overprotection →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295	.058	-.253***	.066	13.626***
3	Fa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171	.064	-.129**	.181	28.156***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 Career decision-making	.412	.054	.362***		
1	Fa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292	.066	-.220***	.058	11.887***
2	Father's overprotection → Integration of self	.053	.055	.048	.010	2.018
3	Fa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291	.066	-.219***	.059	7.934***
	Integration of self → Career decision-making	-.018	.061	-.015		
1	Fa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292	.066	-.220***	.058	11.887***
2	Father's overprotection → Family projection process	-.608	.068	-.412***	.198	47.418***
3	Fa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097	.069	-.073	.161	24.444***
	Family projection process → Career decision-making	.321	.047	.357***		
1	Fa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292	.066	-.220***	.058	11.887***
2	Father's overprotection → Emotional cutoff	-.473	.072	-.320***	.102	21.875***
3	Fa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200	.068	-.150**	.101	14.306***
	Emotional cutoff → Career decision-making	.196	.046	.217***		
1	Fa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292	.066	-.220***	.058	11.887***
2	Father's overprotection → Family regression	-.436	.059	-.348***	.161	36.755***
3	Fa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200	.069	-.150**	.092	12.931***
	Family regression → Career decision-making	.212	.056	.200***		

p < .01, *p < .001. Controlling for gender is not shown.

자아의 통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과보호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으나($\beta = -.220, p < .001$), Model 2와 Model 3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과보호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의 통합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가족투사과정과 가족퇴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과보호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고($\beta = -.220, p < .001$), Model 2에서 아버지 과보호가 가족투사과정과 가족퇴행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가족투사과정 $\beta = -.412$, 가족퇴행 $\beta = -.348$, all $p < .001$).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가족투사과정과 가족퇴행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며(가족투사과정 $\beta = .357$, 가족퇴행 $\beta = .200$, all $p < .001$), 아버지 과보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투사과정과 가족퇴행은 두 가지 모두 아버지 과보호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족투사과정 95% CI = $-.281 \sim -.134$, 가족퇴행 95% CI = $-.161 \sim -.042$).

2)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각 하위영역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 과보호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beta = -.248, p < .001$)을 미쳤고, Model 2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 과보호가 매개변수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

Table 7. Mediation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Young Adults' Career Decision-Making (N = 387)

Model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	SE	β	R ²	F
1	Mo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309	.061	-.248***	.072	14.800***
2	Mother's overprotection →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210	.055	-.192***	.040	7.921***
3	Mo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223	.058	-.179***	.196	31.136***
	Intellectual vs. emotional functioning → Career decision-making	.410	.053	.360***		
1	Mo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309	.061	-.248***	.072	14.800***
2	Mother's overprotection → Integration of self	.021	.052	.021	.009	1.647
3	Mo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309	.061	-.248***	.072	9.900***
	Integration of self → Career decision-making	-.024	.060	-.020		
1	Mo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309	.061	-.248***	.072	14.800***
2	Mother's overprotection → Family projection process	-.664	.061	-.480***	.259	67.054***
3	Mo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101	.067	-.081	.161	24.564***
	Family projection process → Career decision-making	.313	.049	.348***		
1	Mo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309	.061	-.248***	.072	14.800***
2	Mother's overprotection → Emotional cutoff	-.679	.062	-.491***	.240	60.726
3	Mo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193	.069	-.155**	.099	14.000***
	Emotional cutoff → Career decision-making	.170	.050	.189**		
1	Mo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309	.061	-.248***	.072	14.800***
2	Mother's overprotection → Family regression	-.445	.054	-.379***	.183	43.096***
3	Mother's overprotection → Career decision-making	-.222	.066	-.178**	.099	14.076***
	Family regression → Career decision-making	.195	.057	.184**		

** $p < .01$, *** $p < .001$. Controlling for gender is not shown.

능,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beta = -.192$, 정서적 단절 $\beta = -.491$, 가족퇴행 $\beta = -.379$, all $p < .001$)을 미쳤다.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각각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며(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beta = .360$, $p < .001$, 정서적 단절 $\beta = .189$, $p < .01$, 가족퇴행 $\beta = .184$, $p < .01$), 어머니 과보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Model 1에서보다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beta = -.179$, $p < .001$, 정서적 단절 $\beta = -.155$, $p < .01$, 가족퇴행 $\beta = -.178$, $p < .01$). 따라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어머니 과보호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95% CI = $-.147 \sim -.040$, 정서적 단절 95% CI = $-.195 \sim$

$-.047$, 가족퇴행 95% CI = $-.154 \sim -.034$).

자아의 통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 과보호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으나($\beta = -.248$, $p < .001$), Model 2, 3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 과보호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의 통합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가족투자과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 과보호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고($\beta = -.248$, $p < .001$), Model 2에서 어머니 과보호가 가족투자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480$, $p < .001$).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가족투자과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 .348$, $p < .001$), 어머니 과보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가족투자과

정이 어머니 과보호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완전 매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 = -.289 ~ -.13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양육태도는 돌봄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였으며,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 3학년 이상 3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자아분화의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가 나타난 하위영역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잘 분화되고,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잘 분화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투사과정은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 효과를,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정도가 낮으며,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정도가 낮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가족투사과정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가족투사과정이라는 매개요인을 고려하면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단절은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부모와 정서적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이 낮고, 부모와 정서적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이 낮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정서적 단절을 매개로 하였을 때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가족퇴행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한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에 봉착했을 때 건설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고, 가족 안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반응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 모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가족퇴행을 매개로 하였을 때 유의미하지 않게 되므로, 가족퇴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변수 중 자아의 통합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매개적 역할을 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는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뜻하고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면 자녀는 자아분화가 잘되고, 자아분화가 잘되면 진로결정수준이 높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따뜻하고 애정적이면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잘 분화되고,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정도와 자녀가 부모와 정서적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이 낮고,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에 봉착했을 때 건설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애정적, 성취적, 긍정적,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N. Hong, 2010; H. Lee & H. Jo, 2004)와 부모가 긍정적이고 민주적,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경우에 자녀의 자아분화가 잘 된다는 연구(W. Hong, 2013; K. Kim & S. Kim, 1996; E. Lee, 2001; H. Yoo, 2004),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수준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S. Ha, 2012; H. Jung, 2006; S. Kang,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가족투사과정과 정서적 단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매개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가족투사과정과 정서적 단절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지만,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가족투사과정과 정서적 단절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는 가족투사과정과 정서적 단절을 고려하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태도는 가족투사과정과 정서적 단절을 고려하여도 진로결정수준에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는 비교적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않지만 가끔씩 한마디의 강한 훈계를 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진로결정에 있어서는 어머니보다 직업생활을 많이 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을 의미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 2>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각 하위변수별로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를 보인 자아분화의 하위변수는 돌봄적 양육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잘 분화되지 않고,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잘 분화되지 않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투사과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정도가 높으며,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정도가 높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단절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일수록 부모와 정서적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이 높고, 부모와 정서적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퇴행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일수록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에 봉착했을 때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제 삼자와의 삼각화 경향이 높아지고, 가족 안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제 삼자와의 삼각화 경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변수 중 자아의 통합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매개적 역할을 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때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면 자녀는 자아분화가 잘 되지 않고, 자아분화가 잘 되지 않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낮다. 즉, 부모가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면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잘 분화되지 않고,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정도와 자녀가 부모와 정서적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이 높고,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에 봉착했을 때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진로결정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거부적, 통제적,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진로결정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H. Lee & H. Jo, 2004; J. Lee, 2011)와 부모의 거부적, 통제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W. Hong, 2013; K. Kim & S. Kim, 1996; E. Lee, 2001; H. Yoo, 2004),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수준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S. Ha, 2012; H. Jung, 2006; S. Kang,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자아의 통합을 제외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W. Hong, 2013; K. Kim & S. Kim, 1996; E. Lee, 2001; H. Yoo, 2004),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S. Kang, 2013; J. Kim, 2000; M. Kim, 2002), 가족투사과정(S. Han, 2007; B. Jun, 2008; S. Kang, 2013; M. Kim, 2002), 정서적 단절(S. Han, 2007; B. Jun, 2008; H. Jung, 2006; S. Kang, 2013), 가족퇴행(B. Jun, 2008; J. Kim, 2000)과 진로결정수준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의 통합의 매개효과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돌봄적,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아의 통합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관이 있고(W. Hong, 2013; E. Lee, 2001), 진로결정수준과도 상관

이 있다는 연구(S. Han, 2007; B. Jun, 2008; H. Jung, 2006; J. Kim, 2000; M. Kim, 2002)가 있는 반면, 보호-복종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K. Kim & S. Kim, 1996), 아버지의 온정-수용 양육태도에서만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H. Yoo, 2004), 그리고 자아의 통합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어떠한 유형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D. Han & W. Kim, 2013; K. Park, 2011)도 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도 자아의 통합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S. Kang, 2013)도 있다.

자아의 통합은 명확한 신념과 견해, 확신을 가지고 자주적인지, 아니면 자주성이 결여되어 타인이나 사회적 압력에 잘 타협하는지를 나타낸다(S. Je, 1989). 그러므로 부모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면 자아가 잘 통합되어 명확한 신념과 견해를 갖게 되며, 명확한 신념과 견해를 가지면 진로결정수준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의 통합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도, 진로결정수준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의 통합이 개인의 신념이나 견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특성이 강한 자아분화의 다른 하위영역과는 달리 부모의 양육태도로부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아의 통합이 개인의 신념이나 견해와 관련이 있는 진로결정수준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측정상의 제한점을 의심해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연구대상의 자아의 통합의 평균이 낮고 분산이 작았기 때문에 어느 변수와도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는 자아의 통합을 측정한 도구의 제한점 때문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의 통합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2개 문항을 제외하고도 .602로 충분히 높지 않았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의 통합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높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예를 들어 D. Han and W. Kim(2013)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가 .40으로 매우 낮았고, 연구결과 어떤 변수와의 관계에서도 자아의 통합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아의 통합 측정도구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에 한정되었고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는 한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실제로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는지 동시에 측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16세까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진로결정수준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분화를 통하여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요컨대,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투입과 산출이라는 단순한 선형적 관계보다는 자아분화와 같은 환경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 등 심리적 특성 요인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의 과호보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자아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진로결정수준도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모가 많은 현실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양육태도가 자아분화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지금까지 부모-자녀관련 연구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자아분화에 있어서도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며,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 Nam & Y. You, 2007). 이는 어머니가 주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므로 대학생 자녀 역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주목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영향에 큰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돌봄적 양육태도에서는 가족투사과정과 정서적 단절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과정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진로결정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모 상담이나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 자녀의 학업성취나 진로준비를 뒷받침한다는 이유

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과보호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때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하위 영역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결과 진로결정수준이 향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가족생활교육, 더 나아가 애정적이면서도 자율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모두 대학생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증시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실제로 자녀의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수준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모두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n, H. (2012.10.5). *The biggest concern is employment*.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52151515&code=9
- An, M., & Yu, K. (2013). The influence of parental career support and parental autonomy support on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y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9), 73-95.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e, S. (2012). *A comparative study for the difference in the accuracy of the online and offline survey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L. W. Hoffman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Russeoo Sage Foundation.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Choi, Y. (2007). *College students' parents involved in course registration*. Retrieved fr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7/08/12/20070812000080.html>
- Choi, S. (2013). The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and career aspir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4(2), 213-234.
- Ha, S. (2012). Relationships of self-differentiation with mental health and career indecision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2), 177-195.
- Han, D., & Kim, W. (2013). Mediating effe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th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nd hostility of adolesc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1), 247-263.
- Han, S. (2007). *Types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high school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 Korea.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o, J. (2010).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0(9), 504-513.
- Hong, N. (2010). *The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W. (2013).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self-differentiation on learned helpless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E. (2011).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elf-differenti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Je, S.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Pusan, Korea.
- Jeon, E., & Kwon, K. (2011).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independence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Meditated by self-este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1), 243-260.
- Jin, E. (2001).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s' rearing attitudes, self-efficacy, and peak-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Jun, B. (2008).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Jung, A. K. Kim, K. H., & Kim, D. M. (2008). A meta-analysis on the studies of career indecis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2), 551-564.
- Jung, H. (2006).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differentiation on career decision level among juveni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Kang, J. (2012.12.26). *Employment stress driven young adults to adolescent suicide*. Retrieved fr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2667071>
- Kang, K. (2009). *The effect of self 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on job-seek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Korea.
- Kang, S. (2013).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 Woon University, Seoul, Korea.
- Kenny, D. A. (2014. 4. 9). Mediation. Retrieved from <http://davidakenny.net/cm/mediate.htm>
- Khu, B., & Yoo, J. (2010). The effects of positive involvement of parent and self efficacy o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ed behaviors of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1), 171-187.
- Kim, B.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self-esteem, and career decision in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3(3), 63-88.
- Kim, J. (2000). *A study of relationship of university students' differentiation of self and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styles with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Christian and non-Christi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 Jung, J.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bonding relation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Research*, 9(4), 31-50.
- Kim, K.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rearing attitude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2009).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o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 making 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2), 933-945.
- Kim, K., & Kim, S. (1996). Relationship among parental rearing attitude, adolescent temperament, and self-differenti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Journal of Human Ecology*, 11(1), 237-257.
- Kim, M., & Kim, B. (2007).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 13-25.
- Kim, M. (2002).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ystem type, self-differenti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N., & Lee, K.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2), 175-191.
- Kim, S. (1996). *Relationship among parental rearing attitude, adolescent temperament, and self-different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Song, S., & Lee,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satisfaction in sports program: Verification of mediation effect using bootstrapping metho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5*(2), 49-65.
- Kim, U., & Cheon, S. (2001). Mediated by ego-identity status: The effect of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tatu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4*(1), 147-162.
- Koh, H. (199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oh, M., & Park, J. (2008).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of career search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and levels of ego-identity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3), 69-85.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Lee, E. (2001). *A study on the level of self-division an parents' nursing attitudes perceived by young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Lee, E., & Lee, S. (2009).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mediator.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4*(4), 529-548.
- Lee, H., & Jo, H. (2004).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achievement goal and career dec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6*(1), 89-105.
- Lee, J. (2011). *The effects on the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by their parental attitude and self-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2000). *The relationships among ego identit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Lim, S., Lee, Y., & Eo, S. (2012). The relations of parenting attitudes to adolesc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ith self-differentiation as a mediator.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Research, 9*(1), 68-87.
- Moon, S. (2013). Structural modeling of an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6), 11-21.
- Nam, S., & You, Y. (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parents and children and college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2*(2), 51-75.
- Oh, S., & Lee, J. (1982).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s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Research Note of Korea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Seoul: Korea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 Osipow, S. H., Carney, G. C., Winer, J.,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thon Consulting and Press.
- Papero, D. (1990). *Bowen family systems theory*. Boston : Allyn and Bacon.
- Park, E. (2008). The influence of fathering style on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1*(1), 47-64.
- Park, K. (2011).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ifferentiations on the core self-evaluations in the employe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1), 243-264.
- Park, S., & Park, H. (2009).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career-related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1), 67-81.
- Parke, R. D. (1996). *Fatherhood*.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2, 1-10.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oulter, S. B. (2006). *The father factor: How your father's legacy impacts your career*. New York: Prometheus Books.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AMO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and Computers*, 36, 717-73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 879-891.
- Shin, J. (2010).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parent support, and self-identity on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J. (1992). The development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 Evaluation of the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1(5), 979-992.
- Woo, Y., & Lee, K. (2007).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undergraduates: Mediated b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presentation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4), 1023-1039.
- Yoo, A., & Kim, Y. (2003). *Theories and practice of parent education*. Seoul: Dong-moon-sa.
- Yoo, 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level of male students in middle school and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Cheonan, Korea.
- Yook, G.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접수일 : 2014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4년 08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29일